

2016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및 온라인 발급으로
진행되어 온라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부금 영수증 우편 비용을 절감하여 더 많은 후원 사업을
전개하고자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방법

①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www.hometax.go.kr (발급필수정보: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

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홈페이지 www.ksm.or.kr
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조회 (로그인 후 이용가능)

※ 2016년 기부금 영수증 내역은 2017년 1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온라인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70-5143-2801 (2808)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Tel. 02-734-7070 | Fax. 02-734-8770 | ksmseoul@ksm.or.kr | www.ksm.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서 특별협의지위 NGO자격을 부여받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입니다

2016
송년호 Vol.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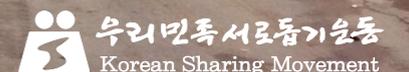
www.ksm.or.kr
www.facebook.com/ksmseoul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Special The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함경도 지역의 수해 복구 노력에
남쪽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목차_Contents

- 03 권두언
- 04 특 집 북한 함경북도 수해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월~11월 10여 차례 물자지원
- 08 인터뷰 “동북아 시대의 리더, 소녀 메르켈을 기다립니다”
_ 박기찬 후원자님 인터뷰
- 10 사업보고1 모든 이가 공유하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 12 사업보고2 미래내 청년들이 준비한 한국의 멋과 맛
- 13 사업보고3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던 재중동포 아이들과의 만남
- 16 사업보고4 인턴후기
- 18 우리함께 책 소개 「봉주르, 뜨르」
- 20 캠페인 한글도서모으기 캠페인
- 21 사업일지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22 특별 모금 명단 북 함경북도 수해지원 특별 모금 명단
- 23 후원자 명단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SOC)의 특별협의자위 NGO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발행인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편집인 강영식 발행일 2016년 12월 주소 (041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나길 46(마포동) B1 전화 02) 734-7070 팩스 02) 734-8770 메일 ksmseoul@ksm.or.kr 홈페이지 www.ksm.or.kr 디자인 및 인쇄 마디커뮤니케이션(02-488-3002)

고문 김성훈, 박경조,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명단: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공동대표 길정우, 김문찬, 김병준, 김세영, 김영수, 김필건, 무원, 박남수, 박준영, 손진우, 우희중, 원해영, 이수구, 이수덕, 이용선, 이재술, 이흥우, 전정희, 정석주, 정의화, 중호, 천정배, 최남섭, 최대석, 홍창진 감사 김영환,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권두언

**창립 20주년,
20년 전의 초심을 되새기고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은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지 7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분단 70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열심히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꼭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주년을 맞이한 올 초부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백서를 준비했습니다. 96년 창립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표면적인 현상은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게 없을까 탄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단 70년의 시간과 명예를 극복하는 데 20년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걸어온 길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온 일들이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점을 또다른 측면에서 절실히 느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백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20년의 여정』이라는 두툼한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 담긴 남북 화해의 여정을 밑바탕 삼아, 우리는 20년 전 창립식이 진행되었던 바로 그 날, 6월 21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전망하고 계획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논의의 결과를 조만간 정리해 2017년 상반기에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년 전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대규모의 대북지원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말~9월 초 북쪽 함경북도 지역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중순부터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재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평소에도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 어린이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홍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쪽 지역의 긴급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낸 물자는 수재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들의 복구 노력에 남쪽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전달되기를 바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물자 전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했던 당시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결국 “그 국민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복구에 땀흘리는 북 수재민들에게 남쪽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전달되었습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월~11월 10여 차례 물자 지원 -

손종도 부장_기획홍보팀



벼룩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수해지원 성금으로
기탁해 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맑은샘학교 학생들

지난 8월 말~9월 초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약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첫 날인 9월 19일 곧바로 북 함경북도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10여 차례 물자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BaB(Bread and Balance)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에도 해외 동포 단체를 통해 어린이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오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홍수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긴급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 이유입니다. 아래에 지난 3개월간 진행해 온 북 함경북도 수해 지원 경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홍수 발생과 피해 규모

지난 여름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0호 태풍 라이온록이 8월 29일 북한 지역을 지나면서 저기압 전선과 합쳐졌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회령시에만 208mm 등 북 함경북도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유엔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폭우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두만강 수위가 6m에서 12m로 높아졌고 강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9월 16일자로 북한 당국은 138명이 사망했고 400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수치와 추정치에 따르면, 약 69,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적어도 14만 명이 심각하게 이 홍수의 영향을 받았으며 6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3만 여 가옥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62%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탁아소, 진료소 등을 포함한 16,400개의 건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작지의 경우 27,000헥타르가 물에 잠긴 가운데 홍수의 영향을 입은 마을들은 침수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동 펌프와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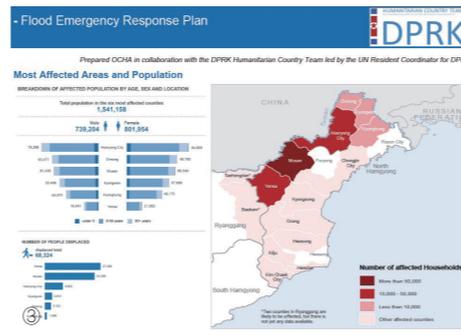
북 함경북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산악지대입니다. 홍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셈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된 마을들도 많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이번 홍수가 이미 존재하던 심각한 상황과 결합돼 식량과 영양 부족, 적절한 의료지원에 대한 접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지역의 취약한 주민들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 노력

북한의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국제사회의 긴급지원 호소와 물자 전달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산하 기구들은 9월 중순 피해지역을 직접 둘러보고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6개 시/군 약 14만 명의 수재민 지원을 목표로 2017년 2월까지 이어질 지원사업에 약 2,8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하는 유엔 관계자도 지원 호소에 동참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태풍 라이온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 동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퀴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 차원의 재건 복구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피해 현장의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퀴타나 보고관은 이번 홍수 피해자들의 식량과 보건, 적절한 주거지

- ① 8월 31일 함경북도 무산군의 침수 모습 (사진 출처: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 ②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지로 북 지역당국이 설치한 천막 (사진 출처: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 ③ 이재민 천막의 내부 모습 (사진 출처: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①② 지원물자를 싣고 중국쪽 도문 해관을 통과하는 차량 모습과 도문-남양간 다리를 트럭이 건너가는 모습. 홍수로 다리가 약해져 한 번에 트럭 한 대만 건너갈 수 있으며 차량이 지나갈 때 다리가 흔들리기도 했는데, 최근 이 다리를 대신할 새로운 다리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③ 유엔의 인도지원 업무조정국(OCHA)에서 펴낸 홍수피해 규모 자료

설에 대한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피해 지역에서는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수해 지원에 추가 배정하는 등 총 435만 달러를 우선 투입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은 식량을 수재민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IFRC도 건강과 위생, 식수 등 긴급 구호 활동을 위해 약 173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함께 수재민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차원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 수재민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함경북도 지역 수해지원에 나섰다. 북민협은 수해 피해가 알려진 이후 회원단체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 약 2억1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IFRC에 전달했습니다. 북민협은 당초 북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표로 우리 정부와 협의했으나 통일부가 난색을 표한 이후 IFRC라는 우회로를 통해 간접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북민협은 이러한 지원을 위해 IFRC와 공식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북민협이 지원한 성금은 수재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물자 지원 내역

차수	지원일	물 자
1차	9월 20일	라면 64,700개 (120개*600상자)
2차	9월 26일	밀가루 10톤
3차	9월 29일	비닐장판 3만5천m ² (1차)
4차	9월 30일	필수의약품 3종 (2,400통 / 25,500정)
5차	10월 11일	비닐장판 3만m ² (2차)
6차	10월 13일	아동방한복 1,680벌 / 신발 500켤레
7차	10월 21일	비닐장판 3만5천m ² (3차)
8차	10월 26일	콩(대두) 45톤 (50kg*900포)
9차	11월 15일	아동용 겨울내의 2,000벌
10차	11월 23일/24일	아동용 겨울내의 10,000벌
합 계		총 409,458,295원

들에게 필요한 임시 거주지와 비식량물자(Shelter and Non-Food Items) 구입에 사용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 부회장 단체로서 1,000만원의 기금을 분담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 경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한 첫 날인 9월 19일 곧바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메일을 보낸 이후 9월 20일 첫 번째 물자 전달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전달한 물자는 라면과 밀가루 등 긴급 식량입니다.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긴급 지원 모금 기간을 11월 말로 잡고 4억원을 목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수재 현장에는 보통 긴급 구호와 더불어 살림집과 주변 시설 복구 등의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복구 지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리의 지원이 한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전에 마무리되어야 수재민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중순인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차레에 걸쳐 수해 지역에 필요한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들 물자들은 모두 그동안 함경북도 지역에 지원해 왔던 해외동포 단체를 통해 북쪽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당초 목표로 한 모금액 4억원을 달성하였지만 모금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초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긴급 구호 식량과 필수약품, 살림집 복구 자재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는 11월부터는 아동용 겨울 내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내복과 방한복은 영하 20도를 가볍게 기록하는 함경북도 지역의 겨울을 북쪽 아이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 지역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유엔 기구들과 IFRC 등 국제기구들이 북 함경북도 수재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기간을 보통 2017년 2월이나 8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12월 한겨울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의 겨울은 한반도 남쪽의 겨울과는 다를 것입니다. 약 7만 명의 이재민과

14만 명에 이르는 수재민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전달한 4억원 가량의 물자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지만,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들의 복구 노력에 남쪽 주민들의 따뜻한 동포애가 전달되기를 바랐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물자 전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번 수재 지원 긴급 모금에는 수많은 개인 후원자들과 주요 기관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수재 지원 긴급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과 기관 명단은 이 책자의 22쪽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해지역의 어린이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해 줄 내복
②③ 아동용 내복이 11월 23일 연길 보세창고에 적재된 모습과 차량에 싣려 도문-남양간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

동북아 시대의 리더, 소녀 메르켈을 기다립니다



인터뷰이 · 박기찬_ 신한은행(역삼역금융센터)리테일 지점장
정리 · 장근영 간사_ 기획홍보팀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은행 내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연구 CoP” (Community of Practice) 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봉사, 학습, 교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 활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기부를 요청 받는 일이 공적, 사적으로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부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요?

기부하고 봉사하는데 순위가 있겠습니까만, 개인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우리민족 아이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돕는 일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내 동호회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연구 CoP”(이하 “COP”라 칭함)의 리더라고 소개하셨는데요. CoP 창립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지요? 참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CoP는 2006년 은행 내 통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한은

행의 미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한은행은 분단 이전에 평양, 개성, 함흥을 비롯한 14개의 북한지역 지점을 두었는데, 이들 등기부를 아직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곳에서도 신한은행의 금융 서비스가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P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 혹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회원 수가 쉽게 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업무로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도 이해하구요.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회원들, 특히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자체 프로젝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쉽게 다가오는, 보다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려고 SNS나 동영상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함께 소통하려고 매 순간 노력합니다.

2013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저희 단체를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처음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소감은 어떠하셨는지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겨울마다 북한어린이돕기를 하고 있는데 3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국장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조선족도서관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뒀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조선족도서관에서 만나는 우

리민족 아이들이 제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실천한 일 중에서 정말 잘한 일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로부터 희망과 보람의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해 마무리하는 소감과 2017년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늦은 시간 숙제를 하다가 힘들어 밤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뭐 하고 있나?’ 싶다가도 조선족도서관에서 책을 들고 기뻐하던 그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이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떠올리면 힘이 나곤 합니다. 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어린이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기를 한 해 한해 기대합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일독일은 물론 오늘날 유럽대륙을 이끌고 있는 메르켈 총리가 12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십년 전에는 분단된 동독의 작은 마을 다락방에서 공부하는 시골 어린이였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조선족 아이들중에, 올해 큰 수해를 입고 추위에 떨고 있을 두만강 너머 아이들 그들 중에, 미래의 통일 시대 나아가 동북아와 유라시아 시대를 이끌게 될 소녀 메르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잔뜩 움츠리고 있을 동북아의 소녀 메르켈, 그 아이의 눈망울을 떠 울리며 우리민족 아이들 지원에 다시한번 힘을 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의 장

남북 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사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환경은 물론 북한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양두리 간사 _ 정책팀

즉각적인 대북지원의 재개를 위해

지난 10월 17일, <2016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본 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하여 대북지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크게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 경기도 특별간담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오전세션 공개회의에는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와 양복완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의 스펀 슈베어젠스키 소장이 각각 인사말과 환영사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오전 세션에서는, 핵개발과 대북제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의 정치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법률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오전 세션에 발표자로 참석한 미국친우봉사회 중국/북한사업단 대표인 린다 루이스는 최근의 수해를 비롯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안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9월 홍수가 야기한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자연재해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 상존하는 인도지원의 필요성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다.”라며 즉각적인 대북지원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국제연대의 장

오후 일정은 여의도에 위치한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후세션에는 60여명의 학자, 활동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자리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농업, 의료, 산림녹화 등 북한 내 분야별 상황과 지원의 우선순위를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각 세션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하루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8일에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특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접경지자체인 경기도의 향후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EUPS3 북한사무소장을 역임한 프랄하드 시르사스, EUPS4 담당자였던 카린 안쯔 등이 참석하여 3시간동안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향후 경기도 사업을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기간 내내 참석자들은 대북지원 국제회의와 같은 교류의 장이 얼마나 중요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국내외 연대의 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려인 청년들이 준비한 한국의 멋과 맛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사업은 위한 기초생활 긴급지원과 의료지원사업, 교육문화사업, 시설농업지원사업, 지역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고려인 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볼고그라드 고려인 청년단체 '미리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간사 _ 지원사업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볼고그라드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명진, 영담 상임공동대표를 비롯, 이용선 공동대표, 장순천 자문위원 등 총 14명이 함께하였으며, 고려인 문화축제 참관과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볼고그라드 현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고려인 청년리더, 미래를 고민하다

22일(토) 볼고그라드 중심가에 위치한 고리기 도서관에서 '고려인 청년리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 포럼은 러시아와 주변의 7개 지역 고려인 청년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향후 민족정체성 확립 및 교류를 위한 공동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그라스노다르, 로스토프나도누, 노보씨비르스크, 사라토프, 키예프(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여



하였고, 이 포럼을 주변 고려인 청년단체에 제안하고 주최한 곳이 바로 '미리내'입니다. 청년리더포럼은 향후 러시아 고려인 청년네트워크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멋과 문화를 소개, 제13회 고려인문화축제

23일(일)에는 13회 고려인문화축제가 볼고그라드 뮤지컬극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축제는 2001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13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멋과 문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물놀이, 전통춤, 아리랑 합창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전통문화를 소개하였고, 젊은 고려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자아낸 K-POP 공연도 열렸습니다. 모든 행사 기획 및 공연은 미리내 청년들과 한글학교 학생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축제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등 볼고그라드의 다양한 민족 6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축제는 뜨거운 환호와 응원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를 만듭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글문화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월 1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대표단이 직접 방문하여 김이교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미리내'가 운영하고 있는 한글문화학교 공간은 볼고그라드시로부터 임대하여 10년 이상 사용해온 것으로 낡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여 좁고 좁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볼고그라드 내 주요 호부군을 선정하여 함께 둘러보고, 위치,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간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국제구호단체인 하얀코끼리는 힘을 모아 고려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볼고그라드 고려인청년들이 언어와 문화 등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려인청년 미리내의 활동을 늘 응원합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던 재중동포 아이들과의 만남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동불사 조선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준비해간 책을 읽어주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책을 보낼 때마다 어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게 될까 궁금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가 더 잘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임재량 _ 동원고등학교 2학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동불사 조선족 아이들

4박5일간 중국에서의 봉사활동은 몇 달 전부터 기대하고 준비했으며, 다녀와서의 여운까지 더해져 무더웠던 날 씨만큼이나 가슴 뜨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매주 중국에 있는 재중동포 어린이들에게 책보내기 봉사를 해왔습니다. 사실 매주 책을 정리하고 포장하면서도 어떻게 이 책이 아이들에게 사용될지는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방문을 통하여 재중동포의 삶도 보고, 제가 정리한 책들이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것 또한 볼 수 있어서 감동이 컸습니다.

길림성에 위치한 동불사 조선족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정한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는데 아이들의 표정에서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걱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라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해맑게 웃어야 할 나이에 많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웠기에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라도 웃고 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두산의 맑은 정기를 내 가슴에

두만강에 세워진 중국과 북한을 잇는 국경 다리 도문대교에서는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두만강에 놀랐고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여행을 하늘도 허락해 주셨는지 그림 같은 백두산의 천지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참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줄을 기다리며 힘들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백두산 정상에 펼쳐진 천지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과도 재미난 기념사진을 남기며 백두산의 이 맑은 정기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생각과 모교도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동주>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생각과 명동 교회, 그리고 대성중학교 까지 모든 곳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힘든 시기에 지식인으로서 시인으로서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시집 한 권도 챙겨 왔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중국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분명히 중국 땅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사는 재중동포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분명 우리 한국이 애정을 가지고 돌봐야 할 우리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에 그들이 먼 타국으로 가서 힘들게 뿌리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는 작은 봉사들이 더욱 의미 있고 책임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낯선 친구들과 시작된 짧은 봉사였지만 숙소에서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밤에 먹었던 양꼬치, 재중동포 아이들과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모두가 다 행복했던 2016년의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보낸 시간

사라 윌리스(Sarah Wallace) _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평화학 석사



북아일랜드에서 한국의 서울에 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인턴십을 한다는 것은 처음엔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3개월간 보낸 시간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의심할 여지없이 제가 겪은 최고의 경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를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친근함과 관대함, 많은 일을 매우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은 아일랜드 문화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측면의 많은 부분들은 '이보다 더 다룰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큰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좋은 경험의 일부이지요. 제가 처음으로 맡은 일은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준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북한의 변화상과 향후 개발협력'을 주제로 내건 국제회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므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도 바쁜 준비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 역할은 국제 참가자 중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발표자, 토론자, 학자, 외교관 등을 초대하고 회의 프로그램, 지도, 숙소 준비 등 실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의 자료집을 제작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자료집의 앞부분 절반은 한국어로, 뒷부분은 영문으로 제작했는데요, 제 역할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롭고 학습하기에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및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정보도 교환하고 개인적으로도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첫째날 회의는 민간단체가 주도한 회의로서는 독특하게도 국회에서 열렸으며 둘째날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국제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북아일랜드의 갈등과 평화 협정에 관한 학술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연하게도 현재 북아일랜드의 평화 협정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을 비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는 풀뿌리 차원에서의 사회적 통합과 화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준에서의 협상 과정과 합의안 등과 관련해 북아일랜드의 평화 협정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점이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언어 장벽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함께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사무처의 모든 사람들과 웃음, 몸짓 또는 대화를 통해 저는 항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진심으로 진정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첫날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쪽의 취약계층을 돕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가 더욱 분발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북이 포용과 화해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

강혁민 _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평화학 석사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강혁민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국제평화학을 공부한 뒤, 지난 8월 한국으로 귀국하여 가장 오래된 대북인도주의 단체인 '우리민족'과 함께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활동들을 경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제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보낸 3개월은 아주 유익한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평화학도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제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남과 북이 한반도 내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포용하며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깨달은 바 역시 이 화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대북국제회의는 북한의 다양한 지형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읽어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남한 내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국내 외 학자들의 의견 타진 과정을 지켜보고 이와 더불어 이런 갈등의 경계에서 실질적인 남북의 화해를 위한 접근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것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은 제게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진행되는 대북지원사업은 중국에 퍼져있는 북한 디아스포라 그룹에 대한 민족적 인류애적 노력이라는 것 역시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탈정치적, 인간 존엄성에 대한 움직임이며 화해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평화주의자들의 실질적 표상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민족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학시절의 제 관심사는 한반도가 아닌 유럽 내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그야말로 초짜나 다름 없었지만, 총장님을 비롯하여 홍상영 국장님, 이에정 부장님, 손종도 부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저의 모든 질문에 너그러이 설명해주시며 제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턴을 마치고 다시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목에 있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제 입가엔 미소가 필 것 같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실 식구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라와 강혁민은 지난 11월28일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에 대한 경험을 우리 사무처 성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사라가 발표한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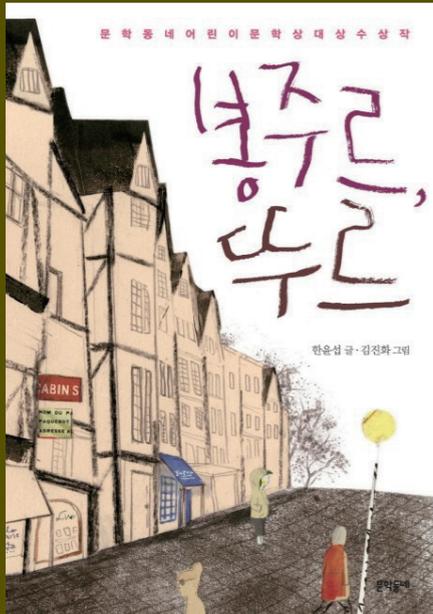
봉주르, 뚜르

문학동네, 2010.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싶은 대상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제11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봉주르, 뚜르』라는 책에서는 분단을 바라보는 12살 소년의 눈을 통해 통일에 관한 의미심장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손종도 부장_기획홍보팀



I.

프랑스 중부 지방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도시 ‘뚜르’, 루아르 강이 흐르는 이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12살 소년의 이름은 봉주. 한국에서는 조금은 촌스럽게 여겨지는 이름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오히려 웃음을 줍니다. ‘봉주’라고 소개를 하면 이름 뒤에 자연스럽게 ‘봉주르 (Bonjour!, 안녕!)’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봉주는 부모님을 따라 뚜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상사 주재원으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 파리에서 몇 달 살다가 뚜르로 옮겨온 것입니다. 새로 이사를 온 뚜르의 집에는 가구와 가재도구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열 시가 조금 넘은 시간, 봉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층에 있는 봉주의 방에는 먼저 살던 사람의 침대와 책상 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는 가구의 위치를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했지만 봉주는 있던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불을 끄고 창문을 닫은 봉주는 뚜르가 파리와 달리 조용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낡은 창문 하나 닫았을 뿐인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곳. 수많은 별을 볼 수 있고, 달빛이 지나가는 곳에 침대가 있습니다. 봉주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달빛이 책상에 부딪치는 순간, 봉주는 낡은 책상 옆면에 적혀 있는 희미한 낙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글자들을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비스듬히 돌리자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낯익은 글자. 순간 봉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

분명 우리글입니다. 이 책상에 우리글이 왜 적혀 있지? 이 방에 한국인이 살았던 걸까? 봉주는 글자 주위를 자세히 살핍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우리글을 찾아냅니다.

“ 살아야 한다. ”

II.

이 다음부터 이야기는 한 편의 추리소설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여서 외국인, 특히 동양인은 거의 없는 뚜르에서 발견한 우리글. 이 글은 누가 어떻게 쓴 것일까요? 그리고 이 책상의 이전 주인은 누구일까요? 봉주는 예전 이 방에 한국인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주인인 듀랑 할아버지는 봉주가 이사 간 그 집에 한국인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봉주는 이제 탐정이 되어 수상한 우리글의 정체를 알기 위한 모험에 나섭니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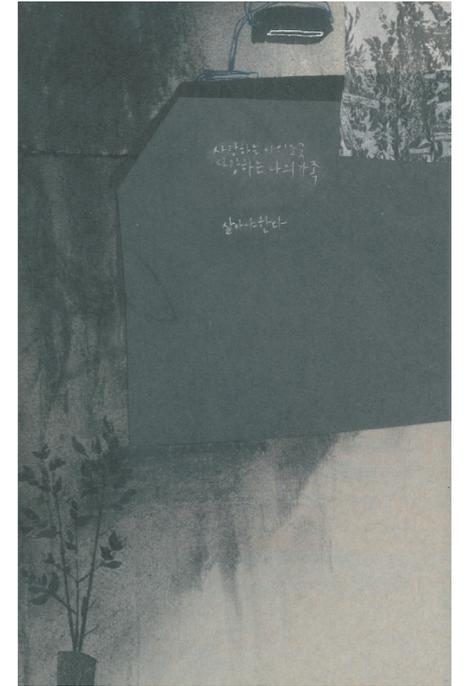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분단은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서울에서 차를 타고 불과 한 시간만 가면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 있지만,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분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과 공기와 같이 우리와 당연히 함께 있는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분단이 그렇게 당연한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합니다. ‘낯설게 보기’는 문학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일상화되어 친숙하거나 반복되어 참신하지 않은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분단을 조금은 ‘낯설게’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의미심장한 우리글에서 봉주는 ‘분단’의 한 단면을 만나게 됩니다.

IV.

『봉주르, 뚜르』라는 이 책은 제11회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어린이 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른이 먼저 읽어야 할 책입니다. 분단을 바라보는 12살 소년의 눈높이는 어찌면 그 ‘분단 체제’가 계속되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있는 어른들을 한 뼘은 더 성장시킵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 더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한글도서모으기 캠페인

경기도 학교 내 (네모상자) 동아리 학생들은 한글도서를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아진 한글도서는 수원에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센터에서 학생들이 직접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어 중국 재중동포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달라진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기적인 이타심 한준희 _ 서울 국제학교 12학년

파란색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여동생의 일각수(一角獸, unicom) 인형, 다른 손에는 조금은 위협적인 해머를 든 채 동네를 뛰어다니는 어린 파워 레인저(power ranger)처럼, 남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준희라는 항성이 있고 그 주위를 가족과 친구, 선생님 등으로 불리는 별과 행성과 달이 돕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아이였습니다. 어리고 순진하고 조금은 고집스러워서 다른 이들과 무엇인가를 나누는 방법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무엇인가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생각 없는 이기주의의 옷을 벗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 중의 하나가 고담시, 아니 수원시를 살리는 계획에 저를 끌어들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처음에는 현실화되기에는 너무 붕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트맨이 될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서울국제학교의 RCY 동아리를 포기하고 WATW(We Are The World)라는 연합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WATW는 일반적인 삶의 질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매우 충동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책을 모으기 시작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모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우리는 집에 있는 낡은 책을 가져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약 600권의 책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실현하는 데 동참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작은 생각과 저의 터무니없는 목표로 시작한 이 활동은 이제 수원 시내 대부분의 학교 어린이들과 중국 재중동포 어린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루지처럼 저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에서 조금은 큰 마음을 지닌 고등학생이 될 수 있었던 기간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설사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저에게 스스로를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여전히 욕심이 많은 저는 적어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꿈을 실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고등학생이라는 과도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7월

- 8일 중국 단둥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협약식 (중국 단둥)
- 8일~12일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교사 국내 초청 연수
- 18일~29일 초등학교 학교과서 수거활동
 - 참여학교 : 서울시 301개교 / 경기도 354개교
- 22일~25일 스포츠를 통한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서울대)
- 27일 새길교회 성금 전달식 (회의실)

8월

- 9일~14일 경기도교육청·네모상자 동아리 중국 봉사활동
- 17일 체육시민연대 '평화 마라톤대회' 참가
- 20일 네모상자 동아리 축제 '네모상자를 품다'(수원 영덕중학교)
- 22일 BaB 캠페인 물자지원 (단둥-서포-원산)
 - 제63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2016년 8월, 한반도와 주변 정세, 어떻게 읽어 내고 대응해야 하나
 - 발표 : 김준형 교수 (한동대학교)
-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업무협약서 체결

9월

- 3일~14일 美 달라스 본부 대표단 방북 (강원도 원산)
- 17일~21일 영국 F4P 코치트레이닝 참가 (영국 브라이튼데)
- 19일 북한 함경북도 홍수피해 지원 긴급모금캠페인 시작
- 20일 대북수해 1차 긴급 지원 (중국 개산톤-온성 삼봉)
- 24일~28일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 26일 대북수해 2차 긴급 지원 (중국 개산톤-온성 삼봉)
- 26일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조선족학교 도서관 준공식 / 천도교 지원
- 26일 제6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북한 주민생활의 변화상 - 장마당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 정은이 교수 (경성대학교)
- 27일 중국 길림성 류하현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 29일 대북수해 3차 긴급 지원 (중국 도문-온성)

10월

- 7일 대북수해 4차 긴급 지원 (중국 도문-온성)
- 7일 조선족학교 도서 9천권 지원 (수원분류센터-부산항)
- 7일 맑은샘학교 수해성금 전달식
- 10일~13일 조선족학교 자매결연과 2017년 사업협의를 위한 경기도 중국 방문
- 11일 대북수해 5차 긴급 지원 (중국 도문-온성)
- 13일 대북수해 6차 긴급 지원 (중국 남평-무산)
- 17일~18일 '넌대북지원 국제회의'
- 21일 대북수해 7차 긴급 지원 (중국 도문-온성)
- 21일~28일 러시아 볼고그라드 대표단 방문
- 26일 대북수해 8차 긴급 지원 (중국 개산톤-온성 삼봉)
- 31일 보리출판사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기증 (800권)

11월

- 8일 제80차 공동대표회의
- 9일~13일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교사 현지 연수 (중국 심양)
- 14일~30일 고등학교 학교과서 수거 활동
- 15일 대북 9차 긴급지원 (중국 남평-무산)
- 19일~20일 제7기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중앙초등학교)
- 21일 제65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평양의 시장경제 실태와 평가
 - 감사 : 박인옥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22일~23일 대북 10차 긴급지원 (중국 도문-온성)
- 25일 <북민협> 대북지원 관련 법률안 입법 공청회 (국회)
 - 평화·통일활동가 워크숍 (참여연대)
- 28일 사무처 내부 정책간담회
 - 주제 :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와 남겨진 과제들
 - 발표 : 사라 월리스(Sarah Wallace) / 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석사

12월

- 2일 중국 단둥조선족학교 네모상자도서관 준공식 / 신한은행 지원 (단둥)
- 3일~4일 대구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수창초등학교)
- 19일 평화나눔센터 특별간담회
 - 주제 : 북한 2016 신년사 리뷰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
 - 발표 : 김영수 공동대표(서강대학교 교수)
- 20일 <민화협> 민족화해제 14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 통일준비 부문 :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 26일~30일 중학교 학교과서 수거활동

전해린	35,000	최재근	10,000	김동우	50,000	이창용	10,000	김우중	30,000	오동일	30,000	한겨레출판문화재단	1,500,000	김희식	30,000	김정미	10,000	박병우	10,000	심원희	10,000	이상학	10,000	임해광	10,000	조한민	10,000
진 훈	5,000	최재천	100,000	김두환	10,000	이춘식	10,000	김희성	20,000	오승현	10,000	한국화학연구원	38,000	가나영	5,000	김정미	10,000	박복옥	10,000	안영화	20,000	이상학	10,000	정문호	10,000	조필준	20,000
정경옥	3,000	최장수	10,000	김영관	10,000	이현택	10,000	김은경	30,000	오대정	10,000	한가백	20,000	갈기관	10,000	김장수	20,000	박상길	50,000	안성화	5,000	이성훈	10,000	정민환	30,000	주관수	10,000
정계원	10,000	최장애	20,000	김문혁	10,000	이현숙	10,000	김자람	10,000	오훈성	20,000	한갑섭	100,000	갈기성	10,000	김정순	10,000	박성양	20,000	안세봉	20,000	이석윤	10,000	정보영	20,000	주근열	10,000
정두용	10,000	최진욱	10,000	김상택	5,000	이희성	50,000	김정미	10,000	위은량	20,000	한영희	10,000	갈기창	10,000	김종갑	20,000	박선오	10,000	안영숙	5,000	이선호	5,000	정사익	10,000	주현기	10,000
정민아	10,000	최진범	20,000	김성도	10,000	장라미아	10,000	김정미	10,000	유근준	100,000	한혜린	10,000	갈기순	5,000	김종순	10,000	박성기	30,000	안정숙	5,000	이상민	10,000	정순현	10,000	주현욱	5,000
정명준	20,000	최철영	30,000	김수경	10,000	장수필	5,000	김정현	10,000	유명량	10,000	한영택	50,000	갈기순	5,000	김종현	20,000	박성호	40,000	안정식	10,000	이상주	5,000	정순현	10,000	지선경	5,000
정미선	10,000	최희자	5,000	김수억	10,000	전병희	10,000	김정은	20,000	유승화	10,000	한인숙	10,000	갈기현	20,000	김종현	20,000	박성호	30,000	안정호	5,000	이상주	10,000	정준호	10,000	지은주	10,000
정민	5,000	최필선	20,000	김연희	10,000	전영길	10,000	김정현	20,000	유연미	10,000	한지섬	10,000	갈기영	50,000	김주영	50,000	박 순	10,000	안종균	5,000	이성호	5,000	정용석	20,000	차봉수	20,000
정병진	10,000	최현주	20,000	김영구	20,000	정광주	5,000	김정현	10,000	윤기홍	15,000	한하늬	10,000	갈기완	10,000	김주완	10,000	박순식	10,000	안종출	5,000	이수희	5,000	차연애	10,000	차현애	10,000
정상모	10,000	최희송	10,000	김윤철	20,000	정광식	5,000	김재호	10,000	윤상진	10,000	허 설	10,000	갈기학	10,000	김주혁	10,000	박애스더	50,000	안관승	20,000	이승근	20,000	장영준	10,000	차정철	20,000
정상현	10,000	추진애	5,000	김용근	10,000	정기운	10,000	김종관	10,000	윤아주	100,000	허인용	10,000	갈기홍	10,000	김주홍	10,000	박영근	20,000	안근성	10,000	이승우	20,000	장원석	10,000	채병철	10,000
정승만	10,000	하승창	20,000	김재준	5,000	정병현	30,000	김종하	10,000	윤영선	50,000	현종스님	10,000	갈기운	30,000	김준석	20,000	박원규	10,000	안문수	10,000	이승우	20,000	장유경	10,000	채보미	5,000
정성호	20,000	한강아	3,000	김장기	10,000	정수조	10,000	김지우	10,000	윤자영	10,000	환성스님	100,000	갈기영	30,000	김준영	10,000	박유중	10,000	안순하	10,000	이승환	10,000	장윤하	5,000	채승이	10,000
정수근	10,000	한길성	10,000	김정인	10,000	정현숙	10,000	김지우	5,000	윤정현	30,000	환성스님	50,000	갈기영	25,000	김종현	200,000	박익용	10,000	안유성	10,000	이엽	10,000	장은하	10,000	채광란	20,000
정수진	10,000	한나영	5,000	김종비	5,000	정종현	10,000	김진경	20,000	윤지민	10,000	황영자	30,000	갈기영	10,000	김종수	10,000	박인숙	60,000	안윤정	2,000	이영주	10,000	장재영	10,000	전경배	20,000
정수현	5,000	한노희	30,000	김종열	5,000	정해열	5,000	김진식	10,000	윤지현	20,000	황아중	10,000	갈기영	50,000	김종호	30,000	박인숙	30,000	안인보	20,000	이영주	20,000	장주혜	10,000	전장배	20,000
정연실(송경평)	30,000	한다솔	20,000	김진관	20,000	정홍귀	10,000	김태경	10,000	윤지현	50,000	황아중	10,000	갈기민	10,000	김지선	20,000	박인숙	10,000	안진성	5,000	이영철	10,000	장홍훈	10,000	최경민	10,000
정연용	20,000	한다현	10,000	김진태	10,000	조성락	20,000	김태경	20,000	윤혜정	10,000	김재규	5,000	갈기자	20,000	김지수	10,000	박재욱	10,000	안혜진	10,000	이영호	50,000	장영수	30,000	최남건	10,000
정연성	10,000	한덕삼	10,000	김창영	10,000	조승훈	5,000	김태영	10,000	이규	10,000	공용택	50,000	갈기홍	5,000	김지어	10,000	박창우	10,000	안혜석	10,000	이영준	20,000	장원익	10,000	최현민	20,000
정연준	30,000	한덕희	15,000	김학재	10,000	조용원	50,000	김학노	10,000	이남희	20,000	김대균	10,000	갈기민	10,000	김진문	10,000	박창자	10,000	이용철	5,000	이우순	10,000	전경환	10,000	최사라	10,000
정영근	20,000	한동학	10,000	김형순	20,000	조우영	10,000	김형숙	30,000	이리나	5,000	김대영	10,000	갈기성	10,000	김진백	30,000	박종욱	10,000	이규철	10,000	이윤근	10,000	진기환	10,000	최승현	10,000
정영철	10,000	한동휘	30,000	김호식	10,000	조주영	5,000	김현수	10,000	이병국	30,000	김대영	5,000	갈기성	10,000	김진현	10,000	박종운	20,000	안윤우	20,000	이윤주	20,000	전필수	20,000	최세민	20,000
정욱식	10,000	한두희	30,000	류희용	10,000	조지현	5,000	김현숙	10,000	이상준	20,000	김대영	5,000	갈기성	10,000	김진현	9,000	박종오	10,000	안주일	20,000	이윤찬	10,000	전미란	5,000	최소옥	10,000
정인성	10,000	한사정	10,000	문대은	10,000	조수순	5,000	김영관	30,000	이선장	10,000	김대중	5,000	갈기성	10,000	김창순	10,000	박주현	5,000	안규현	10,000	이유명	20,000	전병태	10,000	최순호	10,000
정인준	50,000	한성희	5,000	문용식	5,000	채송화	10,000	이선호	20,000	이선호	20,000	김덕희	10,000	갈기영	10,000	김창영	10,000	박지연	10,000	안철	50,000	이문식	10,000	전승관	10,000	최순호	10,000
정재민	10,000	한승엽	10,000	문대환	5,000	최경미	10,000	김혜경	10,000	이새은	10,000	김도규	20,000	갈기영	20,000	김태근	20,000	박지중	10,000	오계환	10,000	이문학	10,000	전달순	10,000	최석덕	10,000
정재욱	20,000	한윤구	10,000	박근순	10,000	최규원	5,000	김혜욱	10,000	이수구	10,000	김동규	10,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지호	10,000	오선연	5,000	이원복	5,000	전정수	10,000	최영희	10,000
정장태	10,000	한인숙	5,000	박만승	10,000	최기천	5,000	김희국	10,000	이수정	10,000	김동규	10,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현철	10,000	안선수	20,000	이동세	10,000	전정수	5,000	최우성	10,000
정지연	10,000	한정화	10,000	박미라	5,000	최석기	5,000	남영진	100,000	이승한	20,000	김동진	10,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영중	30,000	오세호	10,000	이단덕	10,000	전정수	20,000	최우복	30,000
정진영	10,000	한준구	10,000	최영욱	20,000	최영욱	20,000	이승현	10,000	이승현	10,000	김동진	10,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영미	50,000	안소영	30,000	이인숙	10,000	전홍식	5,000	최유식	5,000
정찬광	10,000	한진욱	5,000	박용수	5,000	최의안	5,000	노민화	10,000	이영동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희순	10,000	오준희	10,000	이일선	10,000	전해민	35,000	최영우	10,000
정한성	5,000	한창현	5,000	박윤훈	10,000	최재문	10,000	노승일	10,000	이완수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박희순	10,000	오준희	10,000	이일선	10,000	전해민	35,000	최영우	10,000
정해문	10,000	함용운	5,000	박재호	10,000	최정환	5,000	노태완	1,000	이문정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방재만	5,000	오형운	10,000	이재민	10,000	정경옥	3,000	최재천	100,000
정현근	10,000	허원홍	10,000	박종환	5,000	최종철	5,000	류덕용	20,000	이원배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방현섭	10,000	오혜근	10,000	이재민	10,000	정경옥	3,000	최정수	10,000
정홍식	10,000	허인자	10,000	박주영	5,000	최지현	10,000	류유빈	10,000	이유열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강우	10,000	오혜선	50,000	이재민	10,000	정두용	10,000	최정애	20,000
정화법	10,000	허 정	10,000	박태신	10,000	푸른초장교회	100,000	류연석	10,000	이은혜	5,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백옥영	10,000	오하선	10,000	이정세	10,000	정찬아	10,000	최진욱	10,000
정대범	20,000	허준규	10,000	박종열	10,000	한성만	10,000	이일양	20,000	이일양	2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소영	20,000	황정찬	10,000	이정수	10,000	정찬아	10,000	최정수	30,000
조두연	30,000	현대명덕면매대리집	10,000	서민원	5,000	함기문	10,000	문갑숙	40,000	이일양	5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수현	20,000	우성호	10,000	이정숙	10,000	정미선	5,000	최재자	5,000
조안용	5,000	현윤식	10,000	서장인	10,000	허규석	10,000	이재경	10,000	이재경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재진	10,000	황동호	10,000	이정숙	50,000	정민	10,000	최정수	20,000
조민아	30,000	현윤성	10,000	서해경	5,000	허민석	5,000	문성욱	20,000	이재숙	10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정민	20,000	황동진	10,000	이정숙	10,000	정병진	10,000	최정수	20,000
조민지	20,000	현윤애	10,000	성도경	10,000	홍상근	10,000	문주성	10,000	이성미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배영란	20,000	황동진	10,000	이정희	5,000	정병진	10,000	최희송	10,000
조봉현	20,000	현윤운	40,000	성환호	5,000	홍상근	20,000	박길호	10,000	이정철	2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백나서	10,000	유근호	30,000	이종석	30,000	정상원	10,000	추진애	5,000
조석희	10,000	한지현	20,000	손성식	10,000	황금철	20,000	박경호	30,000	이정훈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변신애	20,000	유남길	20,000	이종석	20,000	정석안	10,000	하승성	20,000
조영진	10,000	조영진	15,000	송기우	10,000	황재택	10,000	박계윤	20,000	이재현	1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변진석	10,000	유영희	5,000	이종안	20,000	정영석	10,000	한근아	3,000
조성호	20,000	홍구표	30,000	송민규	5,000	홍구표	30,000	이종실	30,000	이종실	30,000	김대중	5,000	갈기영	10,000	김태근	20,000	변미란	10,000	유승주	5,000	이종호	5,000	정수근			

화산농건	20,000	유재호	10,000	곽정환	10,000	박보균	10,000	잔법권	10,000	강익범	10,000	김성우	10,000
황계연	100,000	유종희	30,000	곽 철	10,000	박형준	30,000	정미혜	10,000	강정미	5,000	김정주	100,000
황대철	10,000	육근범	10,000	권영은	10,000	방석환	10,000	장성경	20,000	강정우	10,000	김성진	100,000
황성주	30,000	윤연석	10,000	배기안	10,000	배기안	20,000	장수준	10,000	김지영	50,000	김성철	10,000
황영성	20,000	윤연수	10,000	권영환(이문희재단)	2,000,000	배수진	10,000	장영자	10,000	김장구	10,000	김소영	10,000
황재성	10,000	이경배	10,000	김경철	20,000	김경철	20,000	장윤영	10,000	김재현	10,000	김수현	10,000
황창규	10,000	이규문	10,000	김경표	10,000	서광의채널	10,000,000	정종욱	30,000	김철일	20,000	김수현	10,000
룡천육아원				이정희	5,000	김경하	20,000	정희민	20,000	김희정	10,000	김소현	10,000
강동혁	10,000	이명현	10,000	김광국	9,000	사철원	30,000	장창수	60,000	김희주	5,000	김정수	30,000
강병수	10,000	이민성	5,000	김금순 이호준	30,000	신정아	30,000	장태은	10,000	경진TRM	20,000	김정수	10,000
강성학	10,000	이상업	10,000	김나눔	10,000	살인해	50,000	장현철	10,000	고기철	10,000	김정우	10,000
강신우	5,000	이상춘	5,000	김덕훈	30,000	김영준	30,000	장혜숙	30,000	고명진	10,000	김국영	10,000
강혜희	10,000	이상기	5,000	김민호	20,000	소장성	50,000	장혜인	10,000	고봉근	10,000	김국영	30,000
고영섭	5,000	이영재	10,000	김미선	10,000	손여준	10,000	정희인	10,000	고석주	10,000	김용현	10,000
고영섭	5,000	이연주	10,000	김부도	20,000	송영옥	20,000	정후진	10,000	고정수	20,000	김용희	5,000
고지영	10,000	이영희	5,000	김상현	10,000	송유성	10,000	조은희	30,000	고창훈	30,000	김우영	20,000
곽지현	10,000	이영희	5,000	김신숙	10,000	송준식	20,000	조재현	10,000	고희갑	10,000	김우영	10,000
곽영한	10,000	이홍범	10,000	김선희	20,000	신대현	5,000	조성아	20,000	곽동선	10,000	김우영	30,000
구윤경	20,000	이윤연	10,000	김승진	20,000	신상목	10,000	진관스님	5,000	곽연실	10,000	김관영	10,000
김경년	10,000	이윤관	5,000	김재승	20,000	신승남	10,000	곽재현	10,000	김은경	10,000	김준경	10,000
김공현	5,000	이윤리	5,000	김영숙	20,000	신승숙	10,000	차창혁	20,000	곽 현	10,000	김은혜	10,000
김근우	10,000	이종문	10,000	김연오	20,000	심재구	10,000	최기수	30,000	구국모	10,000	김은희	10,000
김진우	5,000	이종민	10,000	김영남	10,000	심재현	10,000	최성민	20,000	구수영	10,000	김은희	10,000
김진우	5,000	이종성	10,000	김영득	10,000	심재정	10,000	최수희	30,000	구영주	10,000	김은희	10,000
김기근	5,000	이우형	5,000	김영중	10,000	안규식	10,000	최윤실	10,000	구정희	20,000	김달성	100,000
김기동	10,000	이진희	5,000	김옥수	20,000	안민식	10,000	최은정	30,000	권영호	10,000	김달성	10,000
김기정	10,000	이진탁	10,000	김용재	10,000	안재형	10,000	최재현	10,000	권승언	10,000	김달성	10,000
김동우	50,000	이창용	10,000	김용화	5,000	안효진	30,000	최태희	10,000	권오근	10,000	김태희	20,000
김두환	10,000	이춘삼	10,000	김우중	30,000	안향식	20,000	탁종녀	10,000	권오근	20,000	김태희	20,000
김명관	10,000	이향택	10,000	김현식	20,000	안효정	5,000	한기태(문희재단)	1,500,000	권현우	5,000	김정	10,000
김문혁	10,000	이현수	10,000	김은경	30,000	오도일	30,000	한국화학연구원	38,000	김희식	30,000	김정미	10,000
김성택	5,000	이희성	50,000	김지람	10,000	우승현	10,000	한기백	20,000	기나영	5,000	김정미	10,000
김성도	10,000	정리미아	10,000	김창권	10,000	오대정	10,000	한덕성	100,000	김기근	10,000	김정수	20,000
김수경	10,000	장수필	5,000	김정미	10,000	오준성	20,000	한동희	10,000	김미성	10,000	김정수	10,000
김수익	10,000	진기철	5,000	김정순	500,000	위은찬	20,000	한애린	10,000	김창배	10,000	김정민	20,000
김영희	10,000	전병희	10,000	김정현	10,000	유근찬	100,000	한원택	50,000	김갑식	30,000	김종갑	20,000
김영규	20,000	전영길	10,000	김정은	20,000	유영택	10,000	한인숙	10,000	김계순	5,000	김종순	10,000
김영철	10,000	정광수	5,000	김정현	20,000	유승희	10,000	한지심	10,000	김관식	20,000	김종현	20,000
김윤근	10,000	정광식	5,000	김정환	10,000	유영민	10,000	한희니	10,000	김관태	20,000	김주영	50,000
김재준	5,000	정기문	10,000	김재호	10,000	윤기홍	15,000	허 성	10,000	김재아	20,000	김주원	10,000
김정기	10,000	정병현	30,000	김종관	10,000	윤성진	10,000	허인용	10,000	김광열	10,000	김주태	5,000
김정민	10,000	정수조	10,000	김종아	10,000	윤여두	100,000	현승남	10,000	김광진	10,000	김주학	10,000
김종열	5,000	정현섭	10,000	김주애	10,000	윤영선	50,000	정성스님	50,000	김근우	30,000	김주홍	10,000
김진관	20,000	정준현	10,000	김지우	5,000	윤지영	10,000	황성스님	100,000	김금순 이호준	30,000	김준식	20,000
김진태	10,000	정혜일	5,000	김진경	20,000	윤정현	30,000	환영자	30,000	김광명	25,000	김준영	10,000
김창영	10,000	정홍귀	10,000	김태경	10,000	윤지민	10,000	황의중	10,000	김기현	10,000	김준현	200,000
김현제	10,000	조성탁	20,000	김태평	20,000	윤지현	50,000			김기은	50,000	김동수	10,000
김형순	20,000	조승훈	5,000	김태형	10,000	윤지현	20,000			김중호	30,000	김중호	30,000
김호식	10,000	조용현	50,000	김낙호	10,000	윤혜정	10,000			김지선	20,000	김지선	20,000
김희용	10,000	조우영	10,000	김광수	30,000	이규	10,000			김 담	5,000	김지선	10,000
문대은	10,000	조주현	5,000	김현수	10,000	이남희	20,000			김대성	10,000	김지이	10,000
문용식	5,000	조지현	5,000	김현정	10,000	이리나	5,000			김대영	5,000	김진문	10,000
문태환	5,000	주순수	5,000	김영관	30,000	이병국	30,000			김대영	5,000	김진백	30,000
박귀순	10,000	채순화	10,000	김혜경	10,000	이성준	20,000			김정자	5,000	김진희	10,000
박민숙	10,000	최경미	10,000	김혜경	10,000	이선정	10,000			김덕희	10,000	김진현	9,000
박미라	5,000	최규원	5,000	김혜옥	10,000	이선호	20,000			김도규	20,000	김창순	10,000
박미숙	10,000	최기찬	5,000	김희국	10,000	이세은	10,000			김동규	30,000	김창연	10,000
박용수	5,000	최석기	5,000	나영진 나영석	100,000	이수구	10,000			김동진	10,000	김태균	20,000
박윤준	10,000	최한욱	20,000	남우주	10,000	이수정	10,000			김동진	10,000	김태순	20,000
박민근	10,000	최의찬	5,000	노민화	10,000	이승환	20,000			김동환	30,000	김동진	50,000
박재호	10,000	최재문	10,000	노태완	1,000	이승현	10,000			김지호	10,000	김희성	10,000
박준환	5,000	최정환	5,000	류득용	20,000	이영동	10,000			김민태	5,000	김희성	10,000
박주영	5,000	최종철	5,000	류수민	10,000	이현수	10,000			김명기	10,000	김희성	10,000
박태신	10,000	최지현	10,000	류연식	10,000	이문성	10,000			김명숙	30,000	김희성	10,000
박용열	10,000	푸른초장교회	100,000	류영준	10,000	이문배	100,000			김명숙	10,000	김희성	10,000
서민원	5,000	한성만	10,000	문경숙	40,000	이유열	10,000			김명희	10,000	김희성	30,000
서정인	10,000	함기문	10,000	문성권	30,000	이은혜	5,000			김민근	10,000	김희성	10,000
서혜경	5,000	하귀석	10,000	문성욱	20,000	이영삼	20,000			김명규	10,000	김희성	5,000
성도경	10,000	허민식	5,000	문주성	10,000	이영삼	50,000			김명규	10,000	김희성	10,000
성현호	5,000	홍성각	10,000	박강호	10,000	이재영	10,000			김명수	10,000	김희성	10,000
송성국	10,000	홍성근	20,000	박경호	30,000	이재순	100,000			김명준	100,000	김희성	10,000
송기무	10,000	황금철	20,000	박계용	20,000	이정미	10,000			김명수	20,000	김희성	10,000
송민규	5,000	황재택	10,000	박금희	30,000	이정철	20,000			김명수	50,000	김희성	20,000
송민규	10,000	송민규	10,000	박동실	2,000	이정훈	10,000			김명수	20,000	김희성	10,000
신민수	5,000	박미경	30,000	박이경	30,000	이재현	10,000			김명숙	20,000	김희성	10,000
신범식	10,000	박상일	10,000	박상일	10,000	이종성	10,000			김명숙	30,000	김희성	10,000
안지윤	10,000	박상희	10,000	이종학	10,000	이종학	10,000			김명숙	10,000	김희성	10,000
안현식	5,000	김대현	20,000	박은주	10,000	이진우	10,000			김명숙	10,000	김희성	10,000
양기주	10,000	김병태	10,000	박재구	100,000	이재경	20,000			김명숙	10,000	김희성	10,000
양재원	10,000	강삼용	10,000	박재현	10,000	이치수	30,000			김석진	10,000	김희성	10,000
오현관	5,000	김민정	30,000	박정숙	30,000	이혁수	20,000			김석영	10,000	김희성	10,000
윤영호	30,000	김희재	10,000	박정식	10,000	이항미	30,000			김희영	5,000	김희성	10,000
원형복	10,000	김영호(이문희재단)	2,000,000	박정화	20,000	이현재	10,000			김희미	5,000	김희성	10,000
유덕호	5,000	고광현	50,000	박종근	10,000	이현정	10,000			김희미	10,000	김희성	10,000
유미경	10,000	고기은	3,000	박종근	10,000	이현주	10,000			김희미	10,000	김희성	10,000
유병용	5,000	고유민	50,000	박종현	20,000	이현주	10,000			김희미	10,000	김희성	10,000
유재욱	10,000	공은주	20,000	박주현	30,000	이영주	10,000			김희미	10,000	김희성	10,000
		곽계영	10,000	박진우	20,000					김희미	10,000	김희성	10,000

블로그그래드

김대균	10,000
공용택	50,000
김재기	10,000
김현경	50,000
나선경	5,000
방철호	20,000
성봉규	5,000
심한용	10,000
이동현	20,000
정지현	10,000
김동환	30,000
김민진	5,000
김민태	5,000
김명기	10,000
김명숙	30,000
김명희	10,000
김명희	10,000
김민근	10,000
김명규	10,000
김명준	10,000
김명수	10,000
김명준	100,000
김명수	20,000
김명수	50,000
김명수	100,000
김명수	20,000
김명수	50,000

안규식	10,000	최윤실	10,000	곽재원	10,000	김은희	10,000	인순옥	20,000	신성문	10,000	이동현	10,000	이희택	50,000	조영식	10,000	홍상은	5,000	송민규	5,000	황지중	5,000	박미경	30,000	이종학	10,000
안민식	10,000	최은정	30,000	곽 현	10,000	김용승	10,000	민환식	10,000	신수익	10,000	이명수	10,000	임강택	20,000	조용진	10,000	홍 석	10,000	송민규	10,000	황지중	5,000	박성일	10,000	이지훈	10,000
안재형	10,000	최재원	10,000	구국모	10,000	김의근	10,000	민현주	10,000	신은결	10,000	이복희	10,000	임광호	30,000	조 윤	5,000	홍상건	10,000	신민규	5,000	황지중	5,000	박성일	10,000	이재경	20,000
안효진	30,000	최태희	10,000	구수영	10,000	김일성	100,000	박영국	5,000	신정식	10,000	이무철	20,000	임근숙	10,000	조윤근	10,000	홍승희	20,000	신병선	5,000	황지중	5,000	박은주	10,000	이지수	30,000
안학식	20,000	탁정녀	10,000	구영주	10,000	김일환	10,000	박영진	20,000	신진현	10,000	이미래	5,000	임분희	10,000	조승원	30,000	홍우영	30,000	안서윤	10,000	황지중	5,000	박재규	100,000	이학수	20,000
안효정	5,000	한계동(일문문화재단)	1,500,000	구정희	20,000	김장훈	10,000	박기찬	10,000	심경란	50,000	이민영	10,000	임병수	10,000	조재호	10,000	홍윤정	10,000	안병수	5,000	황지중	5,000	박재규	10,000	이학미	30,000
오동일	30,000	한국화학연구원	38,000	권병오	10,000	김재욱	20,000	박기호	20,000	삼나리	10,000	이병재	10,000	임세진	10,000	조정순	10,000	홍재표	10,000	임기주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30,000	이현재	10,000
오승현	10,000	한기백	20,000	권승언	10,000	김재홍	10,000	박남용	50,000	김삼선	10,000	이병민	10,000	임완민	10,000	조준석	10,000	홍준석	10,000	임현정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이현정	10,000
오태정	10,000	한덕섭	100,000	권오근	10,000	김 정	10,000	박동우	5,000	심현희	10,000	이병도	10,000	임인기	10,000	조창식	10,000	홍진표	110,000	임현석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20,000	이현주	10,000
오훈정	20,000	한승희	10,000	권오근	20,000	김정미	10,000	박동호	50,000	안영화	20,000	이병동	10,000	임정원	5,000	조태현	5,000	홍창규	10,000	유성록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임영민	5,000
위은량	20,000	한애린	10,000	금희식	30,000	김정미	10,000	박문식	30,000	안상화	5,000	이상복	10,000	임재예	10,000	조현민	10,000	홍현서	15,000	유성광	5,000	황지중	5,000	박종근	10,000	임영민	10,000
유근준	100,000	한관택	50,000	가나영	5,000	김정수	20,000	박미란	10,000	안세봉	20,000	이상재	10,000	임재예	5,000	조광준	20,000	홍현서	30,000	유용복	30,000	황지중	5,000	박종근	10,000	장병식	10,000
유니크교육	1,000,000	한인숙	10,000	갈기란	10,000	김정수	10,000	박병우	10,000	안영숙	5,000	이상학	10,000	장민호	10,000	주관수	10,000	최신영	20,000	홍현서	10,000	황지중	5,000	박종근	10,000	장병식	10,000
유영림	10,000	한지섭	10,000	갈미성	10,000	김정민	20,000	박병우	10,000	안정덕	5,000	이상호	10,000	장민환	30,000	주재열	10,000	황계연	80,000	유덕조	5,000	황지중	5,000	박진우	20,000	장미혜	10,000
유승희	10,000	한하늬	10,000	갈창배	10,000	김종갑	20,000	박복영	10,000	안정식	10,000	이상훈	10,000	장보형	20,000	주희기	10,000	황대철	10,000	유미경	10,000	황지중	5,000	박진우	10,000	장성경	20,000
유연미	10,000	허 설	10,000	김갑식	30,000	김종길	10,000	박상욱	50,000	안정훈	5,000	이석훈	10,000	장사익	10,000	주희우	5,000	황성주	30,000	유방용	5,000	황지중	5,000	박형준	30,000	장수준	10,000
윤기홍	15,000	최인용	10,000	김계순	5,000	김종순	10,000	박상일	20,000	안정금	5,000	이 선	10,000	장서영	15,000	자신경	5,000	황영철	20,000	유재욱	10,000	황지중	5,000	박형준	1,000,000	장영자	10,000
윤성진	10,000	현홍스님	10,000	김관식	20,000	김종현	20,000	박석양	10,000	안종철	5,000	이성호	5,000	장순천	10,000	차정호	10,000	황재성	10,000	유재호	10,000	황지중	5,000	박형준	30,000	장영자	10,000
윤여두	100,000	환성스님	100,000	김관태	20,000	김종혁	10,000	박신오	30,000	안준상	40,000	이성민	10,000	장영운	20,000	차봉수	20,000	황중철	10,000	유종희	30,000	황지중	5,000	박종근	10,000	장영자	10,000
윤영선	50,000	환성스님	50,000	김광아	20,000	김주영	50,000	박성은	30,000	안광수	20,000	이성수	5,000	장영석	10,000	차민애	10,000	황중철	10,000	유근범	10,000	황지중	5,000	박종근	10,000	장병식	10,000
윤자영	10,000	황영자	30,000	김광영	10,000	김주환	10,000	박소희	10,000	안근성	10,000	이상주	10,000	장영석	10,000	차형철	20,000	단기근	573,600	윤영석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30,000
윤정현	30,000	황의중	10,000	김광진	10,000	김주태	5,000	박 소	10,000	안문수	10,000	이상호	5,000	장영훈	10,000	채영훈	10,000	이원욱	100,000	장영수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60,000
윤지현	20,000			김근우	30,000	김주홍	10,000	박순성	10,000	안순환	10,000	이숙희	5,000	장영석	10,000	채기미	5,000	이철주	10,000	이경래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윤지현	50,000			김금순 이호준	30,000	김주홍	10,000	박애스터	50,000	안우성	10,000	이승근	20,000	장영석	10,000	채수이	10,000	이승근	10,000	이규문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윤혜정	10,000			김광명	25,000	김준석	20,000	박영근	20,000	안윤정	2,000	이승영	20,000	장영석	10,000	채한라	20,000	김영민	20,000	이기훈	5,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30,000
윤혜정	10,000			김기원	10,000	김준영	10,000	박현규	10,000	안인보	20,000	이승우	20,000	장영석	10,000	천경배	20,000	김영민	5,000	김근영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규	10,000	김대균	10,000	김기원	10,000	김준현	200,000	박유중	10,000	양진선	5,000	이승환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남희	20,000	공용택	50,000	김기은	50,000	김준호	10,000	박유용	10,000	양해준	10,000	이 업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리나	5,000	김재기	10,000	김기만	10,000	김중수	10,000	박유용	10,000	양해준	10,000	이 업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병국	30,000	김현미	50,000	김길자	20,000	김희수	30,000	박인숙	10,000	양희석	10,000	이영주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상준	20,000	나선경	5,000	김지선	20,000	김지선	20,000	박인숙	30,000	어용철	5,000	이영철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선정	10,000	방철호	20,000	김 지 당	10,000	김지선	10,000	박인숙	10,000	어기철	10,000	이영호	5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선호	20,000	선봉규	5,000	김대성	10,000	김지이	10,000	박재욱	10,000	엄용수	20,000	이영호	2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세은	10,000	심현용	10,000	김대영	5,000	김진문	10,000	박정자	10,000	엄지일	30,000	이옥순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수구	10,000	이동현	20,000	김대영	5,000	김진백	30,000	박종록	10,000	엄규현	10,000	이영주	2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수정	10,000	김지현	10,000	김대중	5,000	김진현	10,000	박종익	10,000	엄 철	50,000	이영찬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승남	20,000	최준혁	10,000	김근희	10,000	김진현	9,000	박주현	5,000	오계환	10,000	이영태	2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승현	10,000	한은혜	5,000	김도규	20,000	김창순	10,000	박지중	10,000	오선연	5,000	이문식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영동	10,000			김동업	30,000	김창연	10,000	오성수	20,000	오성수	20,000	이문식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원수	10,000			김동진	10,000	김태근	20,000	박현철	10,000	오세호	10,000	이문식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원정	10,000			김동진	10,000	김태순	20,000	박정중	30,000	오소영	30,000	이문덕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원혜	100,000	ONE1	100	김동환	30,000	김동기	50,000	박혜연	10,000	오수형	10,000	이문수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유열	10,000	송은천사	10,200	김만진	5,000	김학성	10,000	박희준	10,000	오승희	10,000	이문선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은혜	5,000	이드팩토리윤성	2,000	김민태	5,000	김학신	10,000	박희준	10,000	오형운	10,000	이문선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영일	20,000	전우만루	1,000	김영기	10,000	김 현	30,000	방재민	5,000	오해근	10,000	이재원	1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영일	50,000	재리돌	100	김영숙	30,000	김현성	10,000	방현섭	10,000	오해선	50,000	이재하	30,000	장주혜	10,000	천경배	20,000	이영찬	10,000	김근순	10,000	황지중	5,000	박정숙	10,000	장기혜	10,000
이재형	10,000	푸른발부비	100	김영신	1																						